

## (2) 순천본당 설립

1931년 5월 순천공소가 문산본당의 김양홍 신부와 진주 옥봉본당 정수길 신부의 선교활동에 힘입어 문산본당에서 분리되어 순천본당(현재의 저전동본당)으로 승격되었다. 1932년 12월 14일 대구교구의 정수길 요셉 신부가 순천본당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되어 이 지역에 교회법상 공식적인 교회의 좌표가 정착하였다.

본당 후보는<sup>1)</sup> 예수야기 테레사이고, 본당 초대 회장은 조윤상 토마스였다. 그리고 그 당시 신자는 90명에 달했으며 작은 성당이지만 박명제 아오스당, 조윤상 토마스 등 지역의 유지들이 많았다. 정요셉 신부는 경북 문경 출신으로 대구 성유스티노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품되었다. 1932년 19세 때 본당 전교회장으로 온 김수엽 루시아(저전동본당 출신 김정원 토마스 신부의 누나)는 독신으로 선교활동에 노력하였는데, 초창기 순천본당이 뿌리를 내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정요셉 신부는 본당의 사목에도 힘썼지만, 특히 순천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공소를 설립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온 힘을 다했다. 낙안공소, 광양공소, 호두공소를 신설했으며 상사공소 및 서면공소의 활성화를 위한 선교활동에 힘썼다. 또한 멀리 여수공소(동산동)까지 미사봉헌을 하여 그 지역의 신앙정착에 크게 공헌하였다. 1933년 정요셉 신부가 저전동 113-2번지에 성당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건평 25평의 소성당을 신축하고, 교구장 임맥폴린 몬시뇰(Owen Mcpolin : S.S.C., 林) 신부의 집전으로 신축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한편 1933년 성 골롬바노 외방선교회가<sup>2)</sup> 한국에 진출하여, 1934년에 전라남도가 아일랜드 성 골롬바노회의 담임교구로 설정되었다. 이에 골롬바노회가 이 지역의 사목을 관할하게 되자 아일랜드인 신부 10여 명이 한국에 오게 되어, 순천본당에도 골롬바노회의 지신부(Brian Geraghty : S.S.C., 池), 간신부(Thomas Neligan : S.S.C., 干)가 1934년 4월 3일자로 발령되었다. 따라서 전라남도가 대구교구로부터 성 골롬바노 외방선교회 담임교구로 변경되었다.

골롬바노회 신부 두 명이 부임하여 정요셉 신부의 사목을 열심히 도우면서 함께 1년간을 생활하면서 초창기 본당 전교회장에 헌신을 다했다. 그런데 방인 신부인<sup>3)</sup> 정신부와 외국 신부인 지·간 신부가 함께 있으니 신자들은 방인 신부를 많이 찾고, 외국 신부들에게는 잘 가지 않아 외국 신부들은 “왜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고 불만이 많았다. 이에 정신부는 본당을 외국 신부들에게 물려주고 1935년 6월 24일 경북 상주 물미본당(현재 서문동본당)으로 전출했으며, 그후에는 골롬바노회 지신부가 제2대 본당 주임신부가 되고, 간신부는 보좌신부로 안정된 사목을 담당하였다. 또한 1934년에 전교회장으로 김찬성 도마가 임명되었고, 여자 전

---

1) 천주교 신자나, 단체 또는 교회는 각자 특별히 자기가 존경해 받드는 성인이나 성녀를 선택하여 그분을 자기의 후보(主保)로 모시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모범된 삶의 실천을 따르려 노력한다. 천주교 신자가 영세(세례)를 받을 때에 본명(속명의 반대)이라는 세례명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개인적인 후보성인(主保聖人)을 교회법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 1918년 아일랜드의 갤빈(E. Galvin) 신부에 의해 창설되었다. 한국에 진출은 1933년 10월 29일이며, 주로 광주교구와 춘천교구에서 사목활동을 해오고 있다. 갤빈 신부는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사제의 수가 엄청나게 부족함을 통감하고, 일생을 선교활동에 몸바친 골롬바노 성인의 뜻을 따라 골롬바노회를 조직하여 ‘성 골롬바노 신학교’를 개설하고 이어서 ‘성 골롬바노 외방선교회’를 창설하였다.

3) 방인(邦人)이라는 말은 자기나라 사람을 말하며, 외국인 신부와 구별하여 일컫는 말로 한국인 신부를 지칭한다.

교회장에는 김수엽 루시아가 임명되어 외국 신부와 함께 전교에 힘썼다.

1931년 본당으로 승격된 저전동 천주교회는 계속 성장·발전하여 1970년 5월 8일 조곡동본당을, 1975년 4월 1일에는 매곡동본당을 각각 분리·독립시켰다. 조곡동본당은 1993년 2월 10일 연향동본당을 분리·독립시켰다.